**마0810 Note**

**도우미 : 믿기만 하라! – 타드 벤트리**

◆믿기만 하라! (타드 벤트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길 원한다.
당신이 초자연적 만남과 초자연 세계, 그리고 그 세계의 실재를 경험하길 원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과 같이 나는 이런 초자연적 만남(encounters)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배워왔다.

Ω막0923.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만약 네가 믿을 수 있으면,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신약 속의 한 이야기는 초자연 세계에 대한 한 이방인의 믿음을 강력하게 예증한다.

Ω마0807.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가서 그를 고칠 것이니라.

Ω마0808. 백부장이 대답하여 여쭈니라, 주여, 당신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실 만큼 나는 합당치[히카노스:유능한,(마치 때에 맞춰)오는,(양적으로)넉넉한,(성격에서) 적당한] 않나이다. 대신에 말씀만 말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고침을 받나이다,

마0809. 이는 내 아래에 군병들을 데리고 있으면서(에코:붙잡다,소유하다,간직하다, 동반하다,보관하다), 나는 권위(위임받은 권능/ 엑수시아: 특권,힘,재능,능력,지배, 자유,대표되는 영향력,권위,사법권,권리) 아래에 있는 사람임이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말하면, 그가 가며, 또 다른 이에게 "오라"말하면 그가 오나이다. 또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말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Ω마0810. 예수께서 이를 들으셨을 때에, 그분께서 놀라시고, 따라온 자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렇게 큰 믿음[피스티스: 설득,신용,(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종교적 선생에 대한)확신,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함,직업에서의 꾸준함,복음적 진리 자체의 체계]을 발견하지 못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발견하지 못하였느니라.

언제가 주님은 그 백부장이 보여준 동일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알려 주셨다.

“타드, 만일 네가 사람들로 초자연 세계의 실재들(하늘이 땅을 만지는 역사-예언의 말씀, 천사들, 꿈, 치유와 축귀)을 믿게 할 수 있다면, 그 때 내가 나의 능력을 더욱 풀어놓을 것이다.”

“하나님, ‘사람들로 천사를 믿게 만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차라리 당신을 믿게 만드는 것이 어때요?” 내가 반문했다.

“내 백성이 나를 믿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네가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그들은 재빠르게 불신한단다.” 그분이 답했다.

여기 그 이유가 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바울, 엘리야, 그리고 다니엘이 천사를 봤다고 말하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이 그런 경험을 갖는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만일 내가 천사를 봤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오늘의 다니엘, 엘리야, 그리고 바울이다.
우리가 초자연 세계를 보지 못하면 누가 본단 말인가?

**◇본절 묵상**

저는 본절을 음미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백부장이 믿었기 때문에, 그냥 밀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은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백부장이 영의 세계의 법칙을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권위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며,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권위에 불복하였던 천사들은 다른 악령들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아서, 지금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유0106.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①, 그리고 자신들을 음란에 건네주며(포류오마이: 전적으로 행실이 나쁘게 되다, 음란에 빠지다), 또 이상한(헤테로스: 다른,변형된 그밖의) 육신을 좇으면서, 같은 방식 안에 있던 그들 주변의 성(城)들이②, 영원한 불의 복수를 겪는 본(本)으로서 진열되는 것과 똑같이, 자기들의 처음의 지위(신분)를 지키지 않고 대신에 자신들의 거처를 떠났던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 때까지 어둠 아래서 영속(永續)되는 쇠사슬 안에 따로 보존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권위를 우습게 알고, 주제를 모르고 아무나 대통령에게도 욕지거리 하지마는,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입니다,

Ω눅1017. 그리고 칠십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니라, 여쭈되, 주여, 당신 이름의 권위를 통해 악령들 조차 우리에게 복종하나이다.

Ω약0407.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마왕을 격퇴시키라(저항, 대항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로부터 달아날 것이니라.

행2305. 그때에 바울이 말하니라, 형제들아, 그가 대제사장임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음이니, 너는 네 백성의 다스리는 자를 악하게(카코스: 약하게,서투르게,악한,병든,불행하게,슬프게,아픈,욱신거리는) 말하지 말지니라(험담하지 말지니라)

Ω롬1301. 낱낱의 혼으로 하여금 더 높은 권능(엑소시아, Exousia: 위임 받은 권능)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어떤 권능도 없음이니, 존재하는 권능들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느니라.

잠0815. 나에 의해 왕들이 다스리며, 또 군주들이 정의(正義)를 제정(制定)하느니라.

잠0816. 나에 의해 군주들이 다스리며, 또 귀족들 곧, 땅의 바로 그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백부장이 영의 세계에서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복종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자기도 권위 안에 있는 자며, 또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로 명하면, 악령들이 복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측면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